

중앙아시아에서 드리는 10월 소식

몇 십년만의 더위라고 할 정도로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남쪽의 천산산맥에 덮인 빙하도 4천 오백미터 이상의 높은 산에만 빙하가 남아있고, 예년에 비해 많이 녹아내려 있었습니다. 뜨거운 한여름에 보아도 하얗게 쌓여있던 빙하가 얇게 꼭대기쪽으로만 남아 있어서 너무 허전하고 이상한 풍경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가을이 되어 다시 산쪽으로 눈이 덮이자 언제 뜨거운 여름이었더냐 하는 것처럼 산 중턱까지 하얗게 눈으로 덮였습니다. 이제 이 눈들이 내년 봄까지 계속 쌓이면서 두터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여름에는 건조한 중앙아시아의 땅으로 녹아내리면서 물을 공급해 줄 것입니다. 건조한 이 지역에 물을 공급하는 자연을 지배하시는 그분의 섭리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나간 여름 기간 동안에는 동료 사역자들에게도 저희에게도 한국에서 여러 다양한 팀들이 방문하여, 이곳 현지인들에게도 다양한 모양의 유익한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1. 현지 공동체

지난 여름 중고등부 학생들을 교사로 세워 여름성경학교를 하면서 많은 도전과 감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이후로 중고등학생들이 여름동안 여러 캠프와 특별 프로그램에 참석하면서 아주 가까워졌고 공동체를 섬기는 일에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부쩍 성장한 모습이라 감사하고 있습니다. 담임 사역자인 벡뚜르 목사도 각종 모임과 성도들 돌보는 일 그리고 전도에 열심을 다하며 감사하게 잘 섬기고 있습니다. 사모인 '디아나'는 약한 체력으로 학기중에는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방학중에 여름성경학교와 중고등부 학생들을 돌보느라 많이 지쳐 있었는데 여름 막바지에 쉼의 시간을 가지며 회복이 되어 감사했습니다. 한국사역자들이 진행하는 'SBS훈련(귀납적 성경연구 훈련)'이 급하게 장소를 찾던중 이번 가을부터는 저희가 출석하는 교회의 건물을 사용하게 되어 현재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키르기즈어와 러시아어로 현지인 리더들이 모집되어 한학기 과정으로 신,구약을 공부하는 아주 알찬 프로그램인데, 교회공동체에 공간이 새로이 생겨서 이런 귀한 모임이 진행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모임들을 섬기고 협력하는 벡뚜르 사역자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외국인 사역자들이 세 가정이 있는데 두 가정은 안식년을 떠나고 저희만 남았습니다.



리더십 그룹에 속해서 돕던 한 사역자 가정이 이번 여름에 안식년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현지인 리더들은 저희들에게 더 의존하며 깊이 관여해 주기를 요청했지만, 저희 생각으로는 이미 아버지께서 이들 리더십 그룹이 충분히 공동체를 인도하고 감당할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기에 독립적인 리더십을 독려했었습니다. 이제 현지인 리더십이 독립적으로 모든 것을 논의하고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이들의 리더십 성장에 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미 수년 전에 리더십 그룹에 속하지 않고 담임목사 내외를 가끔 개별적으로 만나 여러 가지 상황을 들어주기도 하면서 후견인 역할을 하며 지내오고 있습니다. 이들이 더 건강한 공동체로 잘 성장해 가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2. 한국어 교실(드림 아카데미) 지난 여름 기간동안 고려인협회에서 주관한 문화체육행사와 소클룩에 있는 국제대학에서 한국 문화축제가 있었고, 고려인협회의 한국어 캠프, 저희가 주관한 한국어 캠프 등 다양한 한국 언어, 문화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드림아카데미 학생들이 이번 여름동안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들에 참석하여 유익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특별히 저희 두 딸이 방학을 이용하여 이곳에 와서, 한국어 캠프에서 통역과 교사로 함께 참석하여 섬기게 되어 아주 뿌듯하고 특별히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중에도 고급반에서 공부하는 10여명의 학생들(고등학생들)은 통역없이 한국어로 프로그램이 진행되어도 충분히 모임과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활발하고 원활한 진행이 되었습니다. 때로 여러 통역이 필요한 상황에는 학생들 가운데 몇 명이 함께 참여하기도 하여, 한국에서 온 봉사단 대학생들과도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9월부터 다시 새학년이 시작되어, 저희 드림아카데미도 새로운 학생들이 모집되었고 중, 고급반 과정도 적절하게 잘 준비되어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에 한국 사역자들도 두명이 더 합류하여 강의를 수준별로 잘 나누어 4개 반을 운영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가 드림아카데미가 시작된지 10년째 되는 해라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학생들의 미래에 대해 장기적인 계획과 현지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논의하는 귀한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이번 가을부터 새로이 합류한 사역자들을 위해, 그리고 이 사역이 아이들에게 언어뿐 아니라 궁극적인 삶의 의미를 찾아갈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노숙인들을 위한 사역 알렉산드르 목사의 헌신적인 사역으로 지난 여름의 무더운 시간도 무사히 잘 보내고 가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두 칸의 숙소가 만들어져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옆에 창고로 방치되어 있던 세 번째 칸도 기거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붕이 두 칸에만 덮여 있었는데, 이제 세 번째 칸의 지붕도 덮었습니다. 알콜 중독자들의 숙소와 작업장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뜨거운 여름 기간동안 조금씩 작업한 결과로 이제 가을철이 되어 눈비가 내리는 계절 전에 지붕을 마감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후원 프로젝트를 신청하여 선정되기를 기다리는 중에 있습니다. 좋은 결과로 이 사역이 지속적인 재화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4. 신약 주석번역 사역 드디어 13권 중 8번째 책(로마서)이 출간되어 지난 8월 말에 책을 받아 보았습니다. 인쇄소가 교체되면서 품질에 대한 염려가 있었는데, 이전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다른 시설로 경영하는 인쇄소에서 예상보다는 인쇄가 잘 되어 저희 편집진들과 함께 아주 감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옥중서신에 대한 감수 작업이 모두 마쳐져서 지금 인디자인으로 책을 편집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 읽기 감수작업을 마치면, 오자와 오타 확인작업을 거쳐 인쇄소로 넘겨지게 됩니다. 어제 마지막 편집용 PDF 파일을 프린팅해서 읽기 감수작업을 할 사역자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제 9번째 책이 거의 완성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간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석번역팀과는 별개로 저의 개인적인 관심분야에 따라 성경해석과 관련된 책들을 연구할 번역팀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막 시작단계로 첫 발을 디뎠습니다. 이 팀의 모든 필요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아시아에서 정헤브론, 김엘레나 드림